

예비유아교사의 건강 지식과 건강 행위, 건강교육 교수효능감 간의 관계 분석

박유미, 박선미*
해전대학교 유아교육과

Analysis of Relationship of Health Knowledge,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Teaching Efficac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Yu-Mi Park, Seon-mi Park*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Hyejeon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건강 지식과 건강 행위, 건강교육 교수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각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충남 지역과 전북 지역 소재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258명을 대상으로 건강 지식, 건강 행위, 건강교육 교수효능감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을 이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t검정과 Welch 분산분석,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일반적 특성 중 일부 변인에 따라 건강 지식과 건강 행위, 건강교육 교수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건강 행위와 건강교육 교수효능감 전체 및 하위 변인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난 반면, 건강 지식과 건강교육 교수효능감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건강교육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건강 행위 전체였으며 설명력은 약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health knowledge,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teaching efficac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variable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teaching efficacy. For these, health knowledge,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teaching efficacy were measured for 258 students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colleges located in Chungnam and Jeonbuk.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a t-test, Welch varianc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 21.0 according to the research proble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health knowledge,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teaching efficacy, according to some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econd, while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overall and subordinate variables of health behavior and teaching efficacy, there was a margin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health knowledge and teaching efficacy. The variable affecting health education teaching efficacy was the overall health behavior,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approximately 30%. Suggestions for subsequent research were proposed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Keywords :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Health Knowledge, Health Behavior, Health Education Teaching Efficacy

본 연구는 2019년도 해전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Seon-mi Park(Hyejeon College)

email: seonmi@hj.ac.kr

Received September 18, 2020

Revised October 7, 2020

Accepted January 8, 2021

Published January 31, 2021

1. 서론

그 어느 때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2020년이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바르게 손씻기를 실천하며,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을 비롯한 각급 학교의 수업은 비대면을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취업모의 증가와 영유아의 교육/보육기관 이용 연령의 하향화로 유아교사의 돌봄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은 이미 오래전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 질환의 대유행(pandemic)으로 인해 스스로 건강 행위를 실천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돌보고 가르치는 교사들은 건강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하며 유아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보고 교육해야 한다. 유아교사가 관련 분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때 자신의 역할을 책임감있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1], 유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교사는 관련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건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로 영유아의 건강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는 믿음, 즉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건강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교수효능감을 가졌을 때 그 행동 또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교수효능감은 교사가 된 후, 또는 교사가 되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특수성을 가지는 자아효능감이라고 볼 수 있다. 교수효능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Bandura([2], [3])가 제시한 자아효능감의 네 가지 원천, 즉 숙달의 경험(mastery experiences), 생리·정서적 상태(physiological and emotional states), 대리경험(vicarious experiences), 그리고 사회적 설득(social persuasion)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교수효능감은 교사의 가지는 지식이나 습관화된 행동 등을 통해 획득될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건강 지식은 개인의 건강 수준을 올바르게 높일 수 있는 필수 요인이자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다[4]. 예비교사가 습득 가능한 건강 관련 지식은 일반적인 건강 관련 지식과 영유아의 건강 관련 지식이 있다. 일반적인 건강에 대한 지식은 초·중등 교육과정에서의 건강 관련 교과목의 수강, 개인적 경험이나 관심 등을 토대로 습득 가능하며, 영유아의 건강 관련 지식은 주로 교사양성과정에서의 교육을 통해 습득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양성 교육과정에서는 유아 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정신건강(론)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여 수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2회 이상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비유아교사의 일반적 건강 지식과 교사양성과정에서 습득한 건강 관련 지식은 교사가 되었을 때 자신이 돌보는 영유아가 기관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기초가 된다. 또한 건강 지식은 인간의 건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건강 행위의 동기부여 요인이 되며 올바른 태도 확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식을 습득했다고 하여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행동은 행동 과정에 관한 지식을 수용하고 분석하는 지각의 단계를 거쳐 비로소 행동으로 나타난다[5]. 이를 건강 행위에 적용하면 건강 행위의 실천을 위해서는 건강 지식이 필요하고, 이를 분석하고 수용하여 내면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특성과 경험, 행위와 관련된 인지-감정 요인, 건강 지식, 건강 상태, 자아존중감 등의 심리적·사회문화적 요인 등[6]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간의 선행연구는 건강 지식과 건강 행위[5], 또는 건강 행위와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7]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는데 자기효능감이 행동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교수효능감은 교사 또는 예비교사가 가지는 특수한 자기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어 방향성을 달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건강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건강에 대한 지식과 건강 행동이 예비교사로서 영유아의 건강교육에 대한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유아교육현장에서 근무하게 될 예비유아교사의 건강 지식, 건강 행위, 그리고 건강교육 교수효능감은 영유아의 건강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교사양성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요인이다. 그러나 예비유아교사의 건강 지식, 건강 행위로 변인으로 하는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이러한 변인과 건강교육 교수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건강 지식과 건강 행위, 교수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건강 지식과 건강 행위가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예비교사의 건강교육 교수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토대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건강 지식과 건강 행위, 건강교육 교수효능감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건강 지식 및 건강 행위와 건강

교육 교수효능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층남 및 전복 소재의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에 재학하고 있는 1, 2, 3, 4(전공심화과정)학년 258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예비유아교사로 한정하였으므로 전공심화과정에서 교사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제외하고 연구를 실시하였다.

2.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건강 지식 및 건강 행위, 건강교육 교수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먼저 각 변인이 예비유아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년, 건강교육 관련 교과목 수강 경험,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 건강에 대한 관심을 묻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건강 지식 및 건강 행위, 건강교육 교수효능감 측정 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2.2.1 건강 지식 및 건강 행위 측정 도구

예비유아교사의 일반 건강 지식 및 건강 행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8]의 도구를 [5]가 수정 보완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건강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은 개인위생 및 일상 생활 습관 8문항, 전염병 예방 5문항, 안전생활 및 약물예방 4문항, 정신건강 3문항 등 4개 하위 범주,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 유형은 사지선다형이며 각 문항 당 1점씩 계산하여 총점 분포는 0-20점 사이이다.

건강 행위 측정 도구는 4점 likert 척도이며 개인위생 및 일상 생활 습관 11문항, 전염병 예방 10문항, 안전생활 및 약물예방 10문항, 정신건강 9문항 등 4개 하위 범주,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 행위 관련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881이었다.

2.2.2 건강교육 교수효능감

건강교육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9]가 개발한 보육교사를 위한 영아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의 수행 목표 및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개발한 자기효능감 측정 문항을 기초로 내

용을 구성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영아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세부 내용 중 일부를 영유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보완하고 유아교육 전문가 2인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토대로 건강 관찰 3문항, 건강문제 인식 및 관리 4문항, 감염병 인식 및 관리 7문항, 응급상황 인식 및 대처 4문항 등 4개 하위 범주,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예비교사의 건강교육 교수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강교육 교수효능감 관련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941이었다.

2.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2020년 4월 질문지 초안을 작성하여 유아교육 전문가 2인의 안면타당도를 거쳤다. 이후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하고 설문 문항의 타당성 및 소요 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유아교사 5명을 대상으로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 연구 결과 문항 이해 및 소요 시간 등에 문제가 없어 수정된 도구로 본 연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2020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이루어졌으며 배포된 290부 중 성실하게 응답한 258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해당 설문이 연구 자료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안내글을 첨부하여 연구 대상의 동의를 구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WIN 21.0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먼저 각 변인이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 및 Welch 분산분석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를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건강 지식과 건강 행위, 건강교육에 대한 교수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정 또는 Welch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학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Dunnett T3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부 변인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유의한 결과를 정리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Differences in health knowled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pec.	①				②		③		④		
	1(a)	2(b)	3(c)	4(d)	yes	no	healthy	non-healthy	lots of	not	
N	77	116	42	23	217	41	214	44	169	89	
⑤	M (SD)	4.79 (1.69)	5.33 (1.66)	5.64 (1.32)	5.91 (.99)	5.33 (1.58)	4.97 (1.72)	5.17 (1.64)	5.77 (1.33)	5.25 (1.64)	5.32 (1.54)
	t/F	5.77 ^{***} (a < c, d)				1.30		-2.27 [*]		-3.7	
⑥	M (SD)	2.51 (1.05)	2.66 (.99)	3.73 (.96)	3.04 (.71)	2.86 (1.07)	2.68 (1.06)	2.76 (1.03)	3.18 (1.21)	2.76 (1.08)	2.97 (1.04)
	t/F	16.03 ^{***} (c > a, b, d)				.96		-2.42 [*]		-1.49	
⑦	M (SD)	3.06 (.78)	3.31 (.75)	3.38 (.73)	3.47 (.73)	3.34 (.72)	2.90 (.89)	3.26 (.77)	3.32 (.77)	3.25 (.78)	3.29 (.74)
	t/F	2.82				3.39 ^{**}		-.48		-.37	
⑧	M (SD)	2.75 (.43)	2.66 (.57)	2.83 (.43)	2.86 (.34)	2.74 (.49)	2.81 (.51)	2.71 (.51)	2.84 (.43)	2.69 (.54)	2.83 (.41)
	t/F	2.23				.41		-1.53		-2.43 [*]	
⑨	M (SD)	13.12 (2.61)	13.98 (2.67)	15.59 (2.27)	15.30 (1.74)	14.26 (2.59)	13.26 (2.89)	13.90 (2.67)	15.11 (2.40)	13.95 (2.69)	14.41 (2.58)
	t/F	12.60 ^{***} (c > a, b/d > a, b)				2.22 [*]		-2.79 ^{**}		-1.35	

* p<.05, ** p<.01, *** p<.001

① Grade ② Experience of taking a course ③ Self perception of health ④ Care for health ⑤ Personal hygiene ⑥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 ⑦ Safe life and drug prevention ⑧ Mental health ⑨ Total

Table 1을 보면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인에 따라 건강 지식에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학년에 따라서는 개인위생(F=5.77, p<.01)과 전염병(F=16.03, p<.001), 그리고 건강 지식 전체(F=12.60,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개인위생에서는 1학년이 3, 4학년보다 점수가 낮았고, 전염병에서는 3학년이 1, 2, 4학년에 비해 점수가 높았다. 건강 지식 전체에서는 3, 4학년이 1, 2학년보다 지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관련 교

과목의 수강 여부에 따라서는 건강 관련 교과목 수강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하위 범주인 안전(t=3.39, p<.01)과 건강 지식 전체(t=2.22, p<.05)의 점수가 높았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는 건강 지식 하위 범주 중 개인 위생(t=-2.27, p<.05)과 전염병(t=-2.42, p<.05), 그리고 건강 지식 전체(t=-2.79, p<.01)에서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건강에 대한 관심에 따라서는 하위 범주 중

Table 2. Differences in health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pec.	②		③		④		
	yes	no	healthy	non-healthy	lots of	not	
N	217	41	214	44	169	89	
⑤	M(SD)	2.95(.46)	3.14(.43)	3.02(.46)	2.77(.42)	3.04(.44)	2.86(.48)
	t	-2.50 [†]		3.29		3.09 ^{**}	
⑥	M(SD)	3.59(.34)	3.59(.34)	3.61(.33)	3.53(.40)	3.62(.34)	3.55(.34)
	t	.04		1.48		1.61	
⑦	M(SD)	3.52(.39)	3.57(.32)	3.55(.38)	3.45(.41)	3.56(.38)	3.49(.39)
	t	-.63		1.54		1.39	
⑧	M(SD)	3.37(.46)	3.45(.39)	3.43(.43)	3.14(.49)	3.43(.44)	3.28(.46)
	t	-1.07		3.92 ^{***}		2.63 ^{**}	
⑨	M(SD)	3.35(.33)	3.43(.28)	3.39(.32)	3.20(.34)	3.40(.32)	3.28(.33)
	t	-1.49		3.49 ^{**}		2.81 ^{**}	

* p<.05, ** p<.01, *** p<.001

정신건강에서 건강에 관심이 없다고 인식하는 집단이 관심이 많다고 인식하는 집단에 비해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43, p<.05$).

다음으로 예비유아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 행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학년에 따른 건강 행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그 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 행위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Table 2를 살펴보면 건강 관련 교과목 수강 경험에 따라서는 수강 경험이 없는 집단이 수강 경험이 있는 집단에 비해 건강 행동 하위 범주 중 개인 위생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t=-2.50, p<.05$). 건강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정신 건강($t= 3.92, p<.001$)과 건강 행위 전체에서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에 대한 관심에 따라서는 건강에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대상이 개인 위생($t=3.09, p<.01$)과 정신 건강($t=2.63, p<.01$), 건강 행위 전체($t=2.81, p<.01$)의 점수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교육 교수효능감을 살펴본 결과 건강에 대한 관심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3을 보면 건강에 대한 관심에 따라서는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집단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 관찰($t=2.61, p<.05$), 응급상황 인식 및 관리($t=2.28, p<.05$), 그리고 건강교육 교수효능감 전체($t=2.23, p<.05$)에서 유의미하게 점수가 높았다.

3.2 건강 지식 및 건강 행위와 건강교육 교수효능감 간의 관계

건강 지식 및 건강 행위, 건강교육 교수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건강교육 교수효능감과 유의한 상관관을 나타낸 변인은 건강 행위였다. Table 4를 보면 건

Table 3. Differences in health education teaching effic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pec.		Care for health	
		lots of	not
N		169	89
Health monitoring	M(SD)	3.36(.50)	3.18(.48)
	t	2.61*	
health problems	M(SD)	3.30(.52)	3.22(.45)
	t	1.23	
Infectious disease	M(SD)	3.37(.49)	3.25(.47)
	t	1.89	
emergency situations	M(SD)	3.39(.51)	3.25(.47)
	t	2.28*	
Total	M(SD)	3.34(.44)	3.22(.41)
	t	2.23*	

* $p<.05$

강 행위의 모든 하위 변인 및 건강 행위 전체는 건강교육 교수효능감 하위 변인 및 효능감 전체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을 나타냈다. 건강 지식의 경우 하위변인인 개인위생만 건강교육 교수효능감의 하위변인 중 건강문제 인식 및 관리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건강 지식과 건강 행위가 건강교육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건강 지식과 건강 행위의 하위변인 중 개인위생 변인은 제거되었다. Table 5를 보면 건강교육 교수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이 나타난 변인은 전체 건강 행위($\beta=.448, p<.001$)였으며 약 30% 정도의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다. 건강 지식 전체 및 하위변인은 건강교육 교수효능감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health knowledge,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teaching efficacy

Spec.	health knowledge					health behavior				
	⑤	⑥	⑦	⑧	⑨	⑤	⑥	⑦	⑧	⑨
Health monitoring	.062	.042	-.063	-.078	.005	.392**	.358**	.345**	.504**	.501**
health problems	.133**	.060	-.023	-.053	.088	.404**	.334**	.310**	.406**	.467**
Infectious disease	.069	.007	-.114	-.053	.001	.383**	.334**	.446**	.527**	.530**
emergency situations	.113	.042	-.007	-.042	.076	.348**	.300**	.261**	.374**	.410**
Teaching efficacy	.119	.041	-.059	-.069	.059	.445**	.377**	.389**	.511**	.546**

** $p<.01$

Table 5. Relative explanatory power of health knowledge and health behavior on teaching efficacy

Dependent var.	Independent var.	B	β	R ²	ΔR^2	F
Teaching efficacy	(Constant)	1.033		.578	.313	15.546***
	Knowledge ⑥	-.005	-.013			
	⑦	-.049	-.087			
	⑧	-.093	-.107			
	⑨	.028	.172			
	Behavior ⑥	-.003	-.003			
	⑦	-.084	-.075			
	⑧	.182	.190			
	⑨	.594	.448***			

*** p<.001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건강 지식과 건강 행위, 건강교육 교수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각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예비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지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년에 따라 일부 지식 하위 변인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학년이 3, 4학년과 같이 높은 학년의 건강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유아교사의 학년에 따라 수학 교과교육학 지식이 높았음을 보고한 [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3, 4학년 집단이 1, 2학년 집단에 비해 신체운동 교과교육학 지식이 높았다는 결과[11]와도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지식이 교과교육학 지식이 아닌 일반적 건강 지식이지만 건강교육 관련 교과목에서는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지식도 다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건강교육 관련 교과목의 수강 경험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 건강교육을 수강한 예비유아교사가 안전 및 건강 지식 전체에서 점수가 높았다. 이는 영양 관련 교과목의 수강경험이 많을수록 지식 정도가 높았다는 [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유아 건강 관련 교과목이 더 많이 편성되어 있는 전문대학 예비유아교사들의 건강 지식 점수가 상대적으로 과목 수가 적은 4년제 대학 예비유아교사와 비교하여 높았다는 결과를 보인 [5]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에 따른 건강 지식 점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예비교사들이 개인 위생 및 전염병 관리, 그리고 건강 지식 전체에서 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5]의 연구결과와 같았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건강에 더욱 관심을 가져 필요한 건강 지식 습득에 신경을 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간호대학생이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관련 지식이 높았다는 [13]의 연구 결과, 원자력발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원자력발전 정보 추구 의도를 강하게 표출하였다는 [14]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건강에 대한 염려가 건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추구하는 기제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해석은 해당 변인 간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되었을 때 그 의미를 보다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건강에 대한 관심에 따라서는 건강 지식 중 정신건강 변인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초·중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15]의 연구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에 따른 영양 지식에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예비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 행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수강경험과 건강에 대한 인식, 건강에 대한 관심에 따라 일부 변인에 차이가 있었다. 먼저 건강교육 관련 교과목 수강 경험이 없는 예비교사들의 개인위생 행위 점수가 높았다. 대학에서의 교과목 수강 경험과 건강 행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 연구가 없어 논의하기는 어려우나 개인의 위생습관은 교사양성과정에서의 교과목 수강 경험보다는 생애 초기부터 교육, 모델링, 직접 경험 등 다양한 경로로 습득한 건강 지식을 토대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건강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예비교사들이 정신건강 행위와 건강 행위 전체에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예비교사들보다 점수가 높았다. 이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예비교사,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 ([5], [8], [16], [17], [18], [19])의 결과와 동일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16]는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자기 결정과 내적 동기가 강화되며 건강문제에 대한 능력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개인의 특성이 환경적 요소와 상호작용함으로써 행동을 결정한다는 Bandura의 상호결정론적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건강에 대한 관심에 따라서는 건강에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예비교사들이 건강 행위 하위 범주 중 개인 위생과 정신건강, 그리고 건강 행위 전체에서 점수가 높았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건강 행위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예비유아교사 및 초·중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5), (15)의 결과와 유사하다.

건강 지식 및 건강 행위와 건강교육 교수효능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건강교육 교수효능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변인은 건강 행위 전체 및 각 하위 요인이었으며,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역시 건강 행위 전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Bandura(2), (3)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과거의 경험이나 행동, 생리·정서적 상태, 대리경험, 그리고 사회적 설득을 언급하고 있다. 이 중 과거의 경험이나 자신의 행동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예비교사의 평소의 건강 행위가 교수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가 동일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예비유아교사의 일반적 특성 중 일부 변인에 따라 건강 지식과 건강 행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선행 연구 결과들이 적은 편이다.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해당 변인에 대한 후속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진 후 그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건강 지식이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 표면적인 결과만 가지고 본다면 일반적인 건강 지식이 없어도 높은 건강교육 교수효능감을 가질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건강 행위라는 것이 건강 지식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직접적이지는 않으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 예측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변인으로 삼은 지식이 건강교육에 대한 교과교육학적 내용 지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건강 지식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현직 수학교사의 교수학적 내용지식이 수학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20), 지식 관련 변인을 건강교육에 대한 교수학적 내용 지식으로 바꾸어 후속 연구를 진행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더불어 기존의 선행연구(10, 20, 21)에서는 교수학적 내용 지식이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히고 있으나, 해당 연구들은 내용 지식의 측정에 있어 자가 평정방식을 사용하였다는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22]의 연구와 같이 연구 대상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건강교육 관련 내용 지식 수준을 직접 측정해볼 수 있는 필답검사 방식의 도구를 개발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로 대상을 한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현직 유아교사의 경우 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험적 지식에 따라 건강에 대한 지식과 건강 행위, 건강교육 교수효능감에 있어 예비교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와 현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해당 변인을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E. H. Park, *Early childhood teachers' knowledge in a knowledge-based society*, pp. 154, Chang-ji Sa, Seoul, 2002.
- [2] A. Bandura,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84, pp. 191-215, 1977.
- [3] A. Bandur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p. 604, W. H. Freeman and Company, 1997.
- [4] M. H. Kim, & M. S.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knowledge about osteoporosis and cognitive factors in middle-aged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11, No.1, pp. 52-57, 2005.
- [5] J. H. Roh, & J. H. Lee, A Stud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Health Knowledge and Health Practic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12, No.1, pp. 29-48, 2008.
- [6] N. J. Pender, *Health Promotion in Nursing practice(3rd ed)*, Appleton & Lange, pp. 320, 1996.
- [7] J. Kim, M. Kwon, & S. Jung, The Influence of Health Locus of Control,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on Health Promoting Behavior in Middle-Aged Adul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4, pp. 494-503, 2017.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7.18.4.494>
- [8] H. H. Yoon, *The relation of Parents' Health Knowledge, Health Behavior and Health Instruction Behavior with Children's Health Behavior*.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pp. 44-52, 2004.

- [9] H. J. Park, *Development and effects of the infant health management education program for day care teachers*, Ph.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p. 79-84, 2012.
- [10] G. Y. Park, *The Comparison of Mathematic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Mathematics Attitude, and Mathematics Teaching Efficacy between Inservice and Pre-service Teachers*, Master's thesis, Gwangju University, Gwangju, Korea. pp. 35, 2016.
- [11] M. Kim, Analysi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the preliminary teacher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n physical exercise, *Educational Theory and Practice for Infants and Children*, Vol.3, No.1, pp. 31-53, 2018. DOI: <http://dx.doi.org/10.20926/ETPIYC.2018.3.1.2>
- [12] I. S. Yang, D. K. Kwak, K. S. Han, & E. K. Kim, Needs Assessment of Nutrition Education Program for Day Care Providers,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Vol.26, No.5, pp. 639-650, 1993.
- [13] S. M. Koo, & H. J.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Perception, Knowledge, Risk Attitude,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for Fine Dust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7, pp. 78-84,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7.78>
- [14] J. Park, H. Lee, & D. Han, The Influence that Exposure to News on Crisis Situations, Perception of Danger, and Health Anxiety Have on Information Pursuit and Word-of-mouth Intentions: Focused on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Journal of Speech, Media & Communication Association*, Vol.27, pp. 165-291, 2015.
- [15] H. S. Yoon, & Y. S. Choi, Analysis of Correlation among Health Consciousness and Nutrition Knowledge, Dietary Habits and Nutrition Attitude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eachers in Masan City,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Vol.35, No.3, pp. 368-379, 2002.
- [16] J. Kim, S. Kim, & Y. Park, Factors Influencing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Wome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Vol.13, No.3, pp. 431-440, 2001.
- [17] H. K. Kim, Factors Influencing Ego Integrity of Elderly.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8, No.1, pp. 24-35, 2006.
- [18] M. Y. Chon, M. H. Kim, & C. M. Cho, Predictors of Health Promoting Lifestyles in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19, No.2, pp. 1-13, 2002.
- [19] H. I. Noh, *Comparative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Health Knowledge to Health Attitude and Health Practical Behaviors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p. 61-64, 2003.
- [20] M.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mathematics teacher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and math teaching efficacy belief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pp. 75, 2009.
- [21] M. J. Yun,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Teaching Creativity and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on Music Teaching Efficac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f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cheon, Korea, pp. 46-47, 2018.
- [22] J. Kim, S. Y. Lee, S. Kwon, & S. Park, The Gap between What You Think You Know and What You Know: A Study on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Self-Perceptions and Actual Understandings of Musical Knowledge,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Vol.8, No.3, pp. 41-57, 2014.

박 유 미(Yu-Mi Park)

[정회원]



- 2006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문학석사)
- 2009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문학박사)
- 2007년 3월 ~ 2009년 2월 : 우송정보대학 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전임교수
- 2009년 3월 ~ 현재 : 해전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 교육학

박 선 미(Seon-Mi Park)

[정회원]



- 200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문학석사)
- 201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문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해전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교사교육, 영아교육, 부모교육